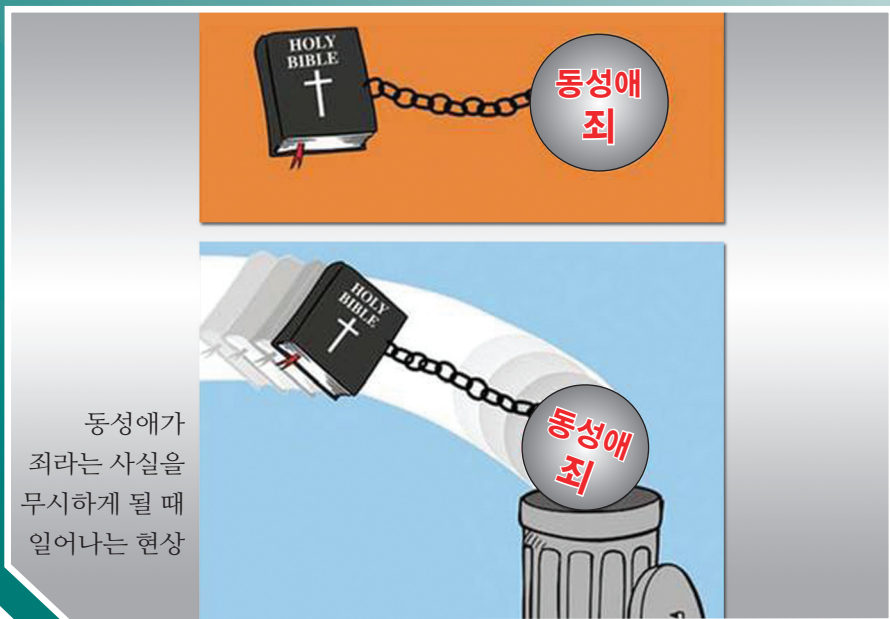


#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동성애(Homosexuality) 시리즈(6)

## 동성혼 대책-1960년의 교훈

CLASS ACT 주민발의안이 실패로 끝났다. 이번 주민발의안은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했던 SB48, 즉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해 이들의 행위는 개인적 취향이며 긍정적으로 취급되도록 유치원생부터 12학년의 교과서에 수록시킨다”를 저지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이번 실패로 캘리포니아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결정으로 앞으로 각 주에서 이와 비슷한 연쇄적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공립학교 교과서를 타깃으로 삼았다. 과연 교과서란 무엇일까? 보장된 베스트셀러, 읽기 싫어도 읽어야 하는 책, 잘 읽었는지 확인 받기 위

해 시험도 봐야 하는 책이다. 모든 학생들은 교과서에 대한 부담이 있다. 꼭 읽어야 하고,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이 책을 읽지 않을까 봐, 이해 못할까 봐... 과연 우리에게 매일 봐야 하는 교과서 이상 영향을 주는 책이 있을까? 앞으로 이 교과서에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 내용이 실린다는 말이다. 즉, 그들의 이런 노력은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모습은 마치 1960년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올 때와 비슷하다. 1900년도 초 미국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 세계관을 갖고 있던 나라였다. 그러던 중에 진화론자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주도로 일어난 일명 “원숭이 재판”(1925년)과, 무신론적 지식인들이 모여서 발표한 “인본주의자 선언문”(1933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 진화론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 진화론이 수록되는 것은 허용치 않았다. 그러던 미국이 1960년 이 재판을 왜곡시킨 영화 “Inherit the Wind(바람의 상속자)”라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여론이 진화론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결국 1960년에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있게 된 것이다.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학교와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어갔다. 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지고, 10년 후에는 낙태와 이혼율이 크게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다. 교과서는 교회에 바로 영향을 주었다. 진화론이 성경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이었다. 진화론은 과학교과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꾼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성경을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이런 진화론이 성경을 반박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진화를 반대하면 교회가 너무 근본주의적이라고 비판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분명 교회가 이런 자세를 보인 것은 진화의 본질을 몰랐을 뿐 아니라, 사회의 시각을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셨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성경이 틀려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0년대를 미국 교회의 전성기로 남겨 놓고 60년대부터 다음 세대들은 빠르게 교회를 떠나 지금은 30대 미만 인구의 교회 출석률이 5%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2012년은 동성애가 교과서에 들어오는 시기가 되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라”(창 1:27)는 동성행위로 결코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가증한 일이



며, 죽이라고 했다(레 18:22; 20:13). 심지어 여자가 남자의 옷을,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도 금할실 정도로 남녀와의 구분은 엄격하다(신 22:5).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고전 6:9),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롬 1: 26, 27)고 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따로 명령하신 구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남녀를 구분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차이점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함이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정말 진화론이 들어오던 1960년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 교과서에 들어왔고, 많은 미국 교회들이 침묵하고... 2012년 동성애가 교과서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침묵하고 있다. 분명히 저쪽에서 세상과 교회에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동성애는 진화론과 같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동성애에 대해 교회에서 지금과 같이 안이한 자세를 취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욱더 빠르게 교회를 빠져나갈 것이다. 이미 성경 말씀에 권위를 버렸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다음세대는 교회가 진화론을 반대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다. 진화론을 수용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다! 믿음의 근거인 성경이 틀려도 된다고 교회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번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세대는 교회가 동성애가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



**AIG**CREATIONS [www.AnswersInGenesis.org](http://www.AnswersInGenesis.org)

닐 것이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하여 교회가 성경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지침을 얻을 때 내가 왜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사탄이 단 한가지 궁극적인 목적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교회가 성경을 신뢰하지 않게”하는 것이다. 사탄이 진화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었다. 지금 동성애를 사용하는 것도 분명한 방향을 두고 있다. 바로 성경이다. 성경 믿는 것을 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눈 앞에 있는 동성애자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세력을 보아야 한다. 바로 사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의미한다.

지난 5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표명이나, 이번 캘리포니아 교과서 문제 등으로 동성애는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거기에 매스컴도 가세를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지금까지 동성행위를 하지 않던 자들까지도 행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타락은 거룩한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홍수심판 이후, 바벨탑 사건 이래로 흩어지며 다 잊어버린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직접 계시하신 진짜 역사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낸 그분의 책을 떠나면 타락하는 것이다.

우리와 다음세대가 타락하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한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곳이며(고전 1:2),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엡 3:10).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 단지 동성애뿐 아니다. 혼전관계, 낙태, 포르노 등 모든 것은 결국에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 교회에 모여야 할 일들을 떨어뜨리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사탄이 지금 동성애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를 통하여 갖게 되는 사회적 개인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결국 동성애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이다. 무엇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는가? 바로 진화론이다. 유럽이 그랬듯이, 미국이 그랬듯이 그 뿌리를 보면 동성애도 역시 진화론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진화론은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 문제를 건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적 정체성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하였는지...

필자가 예전에 동성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미국 친구와 한 주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동성애에 대한 문제만큼은 여전히 동성애자 편에서 변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때 필자는 그 친구 한 사람 앞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동성애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창조와 진화’, ‘노아홍수’, ‘지구의 나이’ ‘창세기 1장’ 등의 주제였다. 이 친구는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그런데 그때서야 그 친구는 동성애가 왜 틀렸는지 알아차렸다. 지금까지 세상과 자신의 느낌에 우선을 두었던 자세에서 성경 쪽으로 권위를 옮긴 것이다.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 연민, 용서 등의 ‘단어’가 진리가 아니다. 분명히 사회가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크리스천이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는 것은 동성애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며, 그분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동성애로 인한 위기를 역으로 이용해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 때이다. 논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가 기회가 아니고 언제랴. 지금까지 이 칼럼에서 나누었던 것을 이용해서, 과학적, 사회적, 성경적 접근을 총동원해서 알릴 수 있다. 오히려 동성애의 위험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14쪽 <왜 젊은 지구인가?>에서 이어지는 글.

요약하자면, 젊은지구창조론은 오랜지구창조론이나 진화론적 유신론에 비해 신학적으로 가장 건전하고 정통적이며 가장 적은 도전에 직면한다. 그것은 또한 오랜지구창조론, 진화론적 유신론, 그리고 진화론적 무신론 모두를 한꺼번에 비판할 수 있는 근본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지구창조론은 과학적으로 매력적인 연구 프로그램이다. 젊은지구창조론은 성경 앞에서 겸손한 관점이다. 젊은지구창조론은 성경에 인간적 생각을 섞기를 최대한 거부한다. 그것이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접근을 포기할만큼 확고한 다른 지식을 현대과학이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과학적 증거들이 성경의 역사적 기록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창조과학선교회는 젊은지구창조론을 전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17)



## 창조과학 탐사여행

### 14차 유학생 탐사여행

지난 8월 6-8일 14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벌써 14번째 입니다. 유학생 창조과학탐사여행은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과 엘바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권혁빈)의 후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언제나 박진감 있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15차 유학생 탐사여행은 2013년 1월 2-3일 Las Vegas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귀중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지구촌교회 중고등부

지난 8월 13-16일 지구촌교회(담임 목사 조봉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에 탐사여행



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요? 탐사여행의 하루 하루가 지나면서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해준 부모님과 교회에 감사하는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촌교회는 매년 봄에는 부모, 여름에는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일본인

지난 8월 23-30일 무려 8일간의 탐사여행이었습니다. 이번이 7번째 떠나는 일본인 탐사여행이었습니다. 그랜드캐년뿐 아니라 요세미티와 샌디에고 창조박물관까지 창조·홍수심판·빙하시대에 이어지는 창세기 1-11장까



유학생 탐사여행



EM 탐사여행(Coffee Break)

지를 완결하는 탐사여행이었습니다. 일본이 참으로 선교에 힘든 나라입니다. 창조과학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EM 탐사여행

지난 8월에 김선욱 (John Kim) 박사의 인도로 두 차례의 EM 탐사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E.M.(8/6-8) 자녀들이 지난 겨울에 이어 두 번째로 탐사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각 교회의 EM 전도사님들을 조장으로 하여 잘 준비된 탐사여행이었습니다. 변화된 학생들뿐 아니라 EM 리더인 전도사님들이 창조과학을 목회에 사용할 때 얻게 될 효과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목사: 최성은) E.M.의 창조과학 탐사여행(8/13-15)도 폭발적인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나온 간증들은 14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되어 있는 EM 탐사여행은, International Grace Ministry(9/20-22), 파사데나드림교회(12/27-29), 2013년 1/2-4일 얼바인 온누리교회 등입니다. 계속 활발한 EM 탐사여행이 이루어 지고 2세대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이 전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기 ITCM 수료

제 3기 ITCM-1 (6월 22일 - 8월 20일)이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8주간의 집중적인 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총 22명의 인턴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일부는 창조과학 강사로 준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주위에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도록, 계속 되는 ITCM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자 발굴과 양성을 위한 ITCM을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4기 ITCM-1 과정은 12월 21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적극 추천해 주시고 참가 희망자는 웹 페이지 [www.hisark.com](http://www.hisark.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용 박사의 2012 과테말라 Creation Touch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과테말라 궤살떼낭고 시를 중심으로 창조과학세미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상득 선교사의 도움으로 지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신학교 및 목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한인교회(담임 김상돈 목사)에서도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형을 위한 창조과학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약 40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최상득 선교사님, 현지교회 오스벨 목사님과 우발도 목사님 부부, 그리고 통역으로 수고한 루이스와 로이드 형제에게 감사드리고, 이번에 과테말라에 섬김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타 창조과학 강연들

이재만 부회장 인도: LA 온누리교회 (8/19), 주님의영광교회(LA, 9/2), 가든 그로브 Coffee Break(9/6)

최우성 박사 인도: 제 17회 토론토 KOSTA(8월 28-31일), 베데스다 대학교 (9/6 - 12/14)

김선옥 박사 인도: International Grace Ministry (Irvine,)

과테말라의 창조과학 강연장



창조과학 탐사여행 -

## EM 사역 리뷰



EM과 KM의 만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TV, 책, 공립학교 교육 등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가르침으로 진화론으로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타협된 기독교학교 교육을 받거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두고 있는데 진화론이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기적들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창조 기적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들을 보니 진화론과 포스트모던 시대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과 물질주의를 주입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신조를 가진 영향력 있는 교사들의 반 기독교적인 적대감으로 매일 폭격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 되고, 새롭게 되고, 강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들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기 시작했



습니다. 이것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탄 없이 말하자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끊임 없이 솟아나는 성경 역사에 대한 질문들, 특히 창세기 1-11장에 대한 과학적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얼마나 길었을까요? 24시간 아니면 수백만년? 지구는 얼마나 오래 되었나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지구가 45억년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성경 역사와 상반되지 않습니까?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법과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화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지요? 어떻게 사람이 성경처럼 900년 이상 살 수 있었지요? 빙행 이론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빅뱅을 사용하셨나요? 인플레이션 이론과 다중우주 이론은 어떻습니까? 인종은 어떻게 시작 되었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Lucy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Homo sapiens였습니까?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죠? 공룡은 언제 살았나요? 공룡이 어떻게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을까요? 공룡도 방주에 탔나요? 판게아(pangaea)가 사실인가요? 왜 공간은 끝이 없죠?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평행한 우주가 가능할까요? 별이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빛이 어떻게 6000년 안에 지구에 도착할 수 있지요? 왜 어떤 생명체들은 흔적기관을 가지고 있나요? 왜 우리가 꼬리뼈를 가지고 있지요? 빙하시대는 어떤 것이며 지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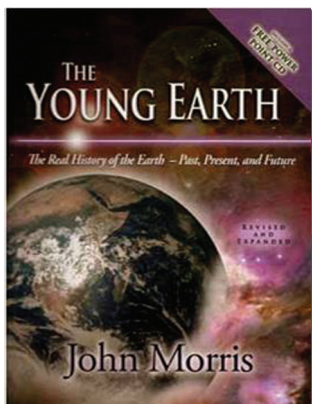
새로운 질문들이 매 여행마다 떠 오른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기에 정말로 감사하다. 창조과학선교회의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최소 경비를 사용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하는 것은 부모님들과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 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질문하게 하고, 대답을 찾게 해서 젊은이들 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진리인 창조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만세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도록 개혁하는 이 결정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창조과학선교회의 스태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욱 박사  
화학공학

## 왜 젊은지구인가?



사람들과 창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창조 과학자들은 이러저러하다고 주장하던데 하면서 창조론에 대해 회의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 창조론이라는 우산 아래에 다양한 약점을 지닌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날-시대 이론, 간격이론, 점진적 창조론, 유신론적 진화론, 다중격변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 가설들과 대조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세간에 모두 창조론이라 불린다. 관건은 어느 창조론이 가장 성경에 부합하면서 과학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의 창조론 내 논쟁은 크게 보아 젊은지구창조론, 오랜지구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 일부 지적설계론 포함), 그리고 진화론적 유신론 (혹은 유신론적 진화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입장을 간략히 비교하면서 왜 젊은지구창조론이 성경에 가장 부합하면서 과학적인가 하는 주장을 정리한다.

### 젊은지구창조론은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가장 단순명료하게 해석한다.

젊은지구창조론의 가장 큰 장점은 창세기의 기록을 가장 정통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를 문자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문자주의라는 말은 이해보다는 오해를 낳기 쉬운 말이다. 한 텍스트의 기록을 그 텍스트 자체의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문자주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통적 해석양식이다. 젊은지구창조론은 하나님께서 6일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구별해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며, 7일 쯤에 안식하셨다는 창세기의 기록을 시가 아니라 담백한 서사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다른 두 창조론이 직면하는 신학적 문제들 - 전지구적 (노아) 홍수는 있었는가, 언제 있었는가, 창조의 순서와 진화의 순서는 왜 양립하지 않는가, 안식하신 때는 언제인가, 창세기의 하루를 달리 해석할 근거는 무엇인가, 최초의 아담은 누구인가, 죽음은 언제 이 땅에 들어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등 - 로부터 자유롭다. 6일 창조를 부인하는 다른 두 창조론은 이 모든 신학적 질문들에 대해 아주 복잡한 정당화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 지구가 젊다면 대진화론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진화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간의 진화를 의미한다면 긴 시간은 진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몇 백 만 년조차도 전 진화의 과정을 위해서는 너무 짧다. 하물며 지구가 6000년 정도

라는 젊은지구창조론의 주장이 옳다면 생물의 대진화는 생물학적 논의와는 별개로 그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결국 지구의 나이는 대진화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젊은 지구의 증명은 대진화 논쟁을 그냥 종결시킨다.

### 젊은지구창조론은 과학적으로 매력있는 주장이다.

오늘날 주류 과학적 가설은 오랜 지구이다. 이는 생물진화론과 맞물려 일종의 과학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과학적 다수의 견해와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사적으로 어떠한 시대이든 과학적 다수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 다수는 패러다임의 변환을 통해 사라지거나 소수의 자리로 물러났다. 과학적 지식은 변화와 수정에 언제나 열려 있다.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지난 수 천 년간의 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마치 과학이 확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식보다는 신념에 기초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젊은지구창조론에 대해 성경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과학이기에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비판이다.

첫째, 과학적 발견은 언제나 연구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이 연구 문제이다.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는지, 별이 왜 반짝이는지를 묻는 것은 충분히 과학적인 연구 문제이다. 그 연구 문제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왜 그 질문을 하는지, 그 동기는 반드시 과학에 한정되지 않는다. 젊은지구창조론자들은 물론 지구가 젊다는 심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문제인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가?”는 충분히 과학적인 연구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은 아무리 다수의 과학자들이 46억년에 잠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정당하게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둘째, 이제 관건은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것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찾는 일이다. 젊은지구창조론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라고 대답할까? 그렇지 않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경험적 증거들을 찾는 것이다. 지구의 젊은 나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지구의 과학적 증거들을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그 방법론의 엄밀성과 연구의 전반적인 질에 의해 평가받을 일이지, 그들의 가정이나 결론이 오늘날 다수의 가정이나 결론과 같은지 다른지에 의해 평가받을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재미있고 혁신적인 연구 문제의 제기에 의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우리는 정말로 지구의 나이를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구의 젊은 나이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거부감을 제외한다면, 과학적으로 상당히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게 만든다. 6000년이라는 숫자가 불편한가?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는 46억년보다 훨씬 짧은 것 아닐까? 라고만 해도 충분히 도전적인 질문이 된다. 아마도 이러한 열린 가설에서 출발해 6000년이 가장 합당해 보인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가장 놀라운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오랜지구창조론이나 특히 진화론적 유신론은 기존 과학적 가설들을 큰 틀에서 대부분 비판 없이 수용한다. 이제 이들의 주된 일은 자신들의 관점이 지닌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성경에 부합하는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입장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자신들의 입장의 정초를 성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답이 열려 있는 과학에 둔다는 점이다. 믿음만한 과학적 지식은 존재한다. 그러나 세상의 기원에 관한 한, 아직은 그리고 앞으로도 확고히 믿음만한 과학적 지식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어지는 글은 5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타코마제약침례교회 EM 탐사여행

8/13-15/2012

이 창조과학탐사여행은 6일 창조를 재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과학선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Jeremiah Hahn (youth pastor)

진화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층들이 수백만 년 걸려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캐년들, 화석들이 만들어지게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 건 수업 시간에 진화론이 대두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진화론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이 정보를 배우기 전까진 저를 방어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 Daniel Kim (8th Grade)

창조에 의심을 가졌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전 이제 진화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를 지지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눈을 열어 창조의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의심들을 파괴하시려고 이 여행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David Walker (10th Grade)

전 성경에 대해 의심했던 진화론자였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 그리고 통찰력을 주는 아주 좋은 비디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창조 이야기와 진화론 모두를 더 잘 살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Vu X. Nguyen (College)

학교에서는 종교와 신이 지구를 창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런 가정들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과 과정과 이론들은 진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혼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이 탐사여행 후에는 이 두 이론은 심각하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론이 단순히 사실일 뿐 아니라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는 진화론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Micah Park (College)

전 선생님들과 가족들에게 사람이 유인원에서 진화 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진화론이 과학자들이 만들어 낸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년이 형성되는과정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 Jong Ik Thom (12th Grade)

이 여행은 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은 물론 창조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무신론자와 진화에 대해 이야기 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론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 - Angela Kwak (College Freshman)

여행 참가신청을 할 땐 별 기대가 없었는데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랜드캐년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엔 광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와 비디오들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고 놀라았습니다. 홍수의 규모는 제 생각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랜드캐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 전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 Esther Kim (College Freshman)

그랜드캐년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은 참으로 가슴 벅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년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컸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우리들의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하찮은 것일까? ... - Joy Park (9th Grade)

이 여행을 통해 이런 복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대면하며 의심들을 날려 버렸습니다. 홍수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믿게 되었습니다. ... 친구들하고도 가까워졌습니다. 이 경이로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싶어요. - Amy Pugh (8th Grade)

이 여행에 참석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캐년 여행을 오기 전에 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 이 여행 덕분에 이 질문들의 답을 얻었습니다. ... - Brianna Park (8th Grade)

솔직히 말하면 이 여행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이제 진화에 대한 어떤 질문에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 Lynn Schreck (10th Grade)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 배워도 진화론의 믿음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 Amy Sanchez (9th Grade)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의문들에 답을 주었고 어떻게 내 믿음을 방어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Christine Bae (College Sophomore)

터무니 없는 진화론을 알게 되자 진짜 창조자는 하나님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Catherine Koo (10th Grade)

제가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와”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 그의 능력이 이 세상과 하늘의 별들과 생명을 창조 하셨다. - Peter Ku (College Freshman)

정직하게 지적으로 창세기를 믿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전 이걸 무척 사모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 Will Kiser (College Sophomore)

처음에 의심스러웠지만 모든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문자적인 창조가 유일한 진짜 믿을 입니다. - Joonyong Lee (11th Grade)

대학에 가는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여행에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운 모든 것이 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 Eunice Yang (College Freshman)

● 요약되지 않은 원문은 홈 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2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10/7 파주순복음 풍성한 교회(이재만), 한국  
 10/9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10/11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이재만), 한국  
 10/13 새벽나라 세미나(이재만), 한국  
 10/14 부산 동산교회(이재만), 한국  
 10/20 샌디에고 탐사여행 (포모나인랜드교회), (최우성)  
 10/21 하늘 빛 선교교회(이재만)  
 10/22-27 창조과학 탐사여행 (이랑학교)  
 10/28 하늘 빛 선교교회(이재만)  
 10/28-11/1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모집)

11/2 한사랑교회 (213-219-7500), CA, 이재만  
 11/5-7 창조과학 탐사여행 (뉴욕 퀸즈한인교회)  
 11/10 ANC 온누리교회 집중 세미나(이재만, 최우성)  
 11/12-14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순복음교회) 이재만  
 11/17 샌디에고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한빛교회)  
 1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파사데나드림교회) E.M. (김선옥)

### 2013년

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E.M. 김선옥  
 1/2-4 유학생 탐사여행 (15차 유학생, 신학생) (이재만)  
 1/6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1/1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20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2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기감도봉지방교육부 비전트립) 이재만  
 1/27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후 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